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 주간 제1041호 |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 2026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하원(DPR), 근로자 보호법안(RUU) 공식 가결… 23개 장·313개 조항 10대 핵심사항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일자리 창출법서 분리 제정
비공식 ·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신설, 외주 5대 업종 한정 및 계약직 기한 엄격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의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로운 노동 관계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은 2026년 10월 6일(화),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2026-2027 회기년도 제1차 회기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공식적으로 가결, 최종 법률(UU)로 제정하였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중 총 326명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안디 가니 네나 웨아(Andi Gani Nena Wea)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SI)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연대 대표단이 대거 참석해 법안 통과 순간을 직접 지켜봤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자 보호법안과 관련된 역사적인 논의를 직접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노동계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326명을 향해 "각 교섭단체(fraksi)에 묻겠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법률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전 교섭단체 의원들이 일제히 동의를 표명하자, 푸안 의장이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리며 법안 제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의결 직후 푸안 의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을 대리하여 출석한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의 최종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공식 발언을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의 가결에 전적으로 동의했음을 확인하며,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법률로 가결되는 데 동의함을 명확히 표명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일반 근로자와 노동자는 물론 구직자, 인턴십 참여자, 나아가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장 전반에 걸친 권익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고용 분야에서의 공정한 형평성과 비차별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결정번호 168/PUU-XXI/2023)에 따른 신속한 사법·입법적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를 향해 기존 일자리 창출법(UU Cipta Kerja 제6호/2023년) 내 노동 관련 조항을 전면 분리하여 독립된 단일 법률로 새로이 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푸안 마하라니 DPR 의장

이에 따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9월 1일 자로 대통령 서한(Surpres)을 하원에 공식 발송해 심의에 참여할 정부 대표 장관단을 지명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하원 제9위원회와 정부 합동 심의반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1차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갔으며, 불과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 냈다. [A6면에서 계속]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집권 2년 차 대대적 개각 단행… ‘바흘릴 겸직 체제’ 출범·치안 총수 교체

- 10월 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서 18명 규모 임명식 거행
- 바흘릴, 다운스트림 · 에너지전환조정장관 겸임… 핵심 국정과제 총괄
- 리스티요 시깃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장 전격 기용… 후임 청장에 수유디 아리오 세토
- 외교 · 안보 라인 재정비… 수기오노 인간개발조정장관, 두둥 정치안보조정장관 이동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메라 푸티 내각(Kabinet Merah Putih)’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대대적인 내각 개편(개각)을 단행했다. 2024~2029년 임기 ‘적백내각(Kabinet Merah Putih)’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내각의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하고 국가 안보 및 핵심 국정과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쇄신 인사로 풀이된다.

자카르타 대통령궁(Istana Negara)에서 열린 이날 공식 임명식에서는 조정장관 및 각 부처 장·차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최고 지휘부, 독립 국가기관장에 이르는 고위직 인사 총 18명에 대한 사령장이 수여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는 이번 개각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다수의 대통령령(Keppres)에 근거해 집행됐다고 밝혔다. 2024~2029년 임기 적백내각 장·차관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 제104P/2026호를 필두로,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농지개혁청장 인사를 규정한 제105P/2026호, 경찰청장 교체를 명시한 제96/POLRI/2026호, 옴부즈맨 위원 인선에 관한 제84P·제96P/2026호, 그리고 재정개발감사원(BPKP) 및 해안관리청 고위직을 규정한 제46M/2026호 등이 일괄 적용됐다.

■ ‘에너지·다운스트림’ 드라이브… 바흘릴, 실세 조정장관으로 부상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경제 핵심 축인 자원·에너지 분야의 지휘체계 통합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인 바흘릴 라하달리아를 신설 ‘다운스트림·에너지전환조정장관’으로 지명함과 동시에, 기존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겸직 결정을 내렸다.

국가사무처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바흘릴 조정장관에게 두 개 부처 직무에 대한 전폭적인 지휘·통할 권한을 공식 부여했다고 전했다. 바흘릴 겸직 조정장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신설 조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백년대계인 광물·자원 다운스트림(고부가가치 가공) 산업 육성과 전 지구적 당면 과제인 에너지 전환 어젠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바흘릴 장관 체제 아래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권력 중추 ‘대통령궁-경찰청’ 연쇄 이동… 치안·정무 라인 전격 재편

권력기관의 수뇌부 교체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경찰청(Kapolri)을 이끌어온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대장이 치안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 정무·국정 조율의 핵심 요직인 대통령비서실장(KSP)으로 전격 입성했다.

이는 전임 두둥 압두라흐만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두둥 실장이 안보 컨트롤타워인 정치·안보조정부(자마리 차니아고 전 장관 후임)로 영전하고, 경찰 수장 출신의 리스티요 시깃 대장이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면서 정권 핵심부의 ‘군·경 출신 지휘관 보직 순환’이 완성됐다.

리스티요 시깃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신임 경찰청장 직에는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중장이 지명됐다. 직전까지 국가마약청(BNN) 청장으로서 마약 범죄 척결을 지휘해 온 수유디 중장은 이번 영전을 통해 대장으로 진급하며 치안 지휘봉을 쥐었다. 이와 함께 경찰 내 2인자인 경찰차장(Wakapolri)에는 와휴 하디닝랏 경찰중장이 새로 임명(대통령령 제97/POLRI/2026호)되어 경찰 지도부가 전면 쇄신됐다.

■ 외교·산업·사회부처 장관 연쇄 발탁… 전문성과 정무 감각 안배

외교와 산업, 사회정책 분야의 진용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외교부 장관을 역임해 온 수기오노 장관이 내각의 사회안전망과 정책 조율을 맡는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프라틱노 전 장관 후임)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이 된 외교수장 자리에는 주프랑스 대사, 유엔 주재 대사, 외교부 차관을 두루 거친 정통 직업 외교관 출신 아르마나타 크리스티아완 나시르 전 차관이 내부 승진해 발탁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여당 골카르(Golkar)당 사무총장 출신이자 국회(DPR RI) 의정 경험이 풍부한 무하마드 사르무지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의 뒤를 이어 취임했다. 정무적 감각을 지닌 정치인을 경제 실무 부처에 배치함으로써 입법부와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 2026년 10월 1일 단행 프라보워 정부 신규 임명 명단

[장관 및 부처 청장급]

아르마나타 크리스티아완 나시르(Arrmanatha Christiawan Nasir) 외교부 장관

수기오노(Sugiono)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

두둥 압두라흐만(Dudung Abdurachman) 정치·안보조정장관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다운스트림·에너지전환조정장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겸직)

무하마드 사르무지(Muhammad Sarmuji) 산업부 장관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대통령비서실장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경찰청장 (대장 승진)

데디 프라세티요(Dedy Prasetyo) 국가농지개혁청장

[각 부처 차관급]

드라잣 하리 위보워 경제조정부 차관

누르콜리소 이브누 아만 재무부 차관

루키 아피르만 재무부 차관

이르완 메일라노 해양수산부 차관

[국가기관 정·부서장 및 차청장급]

아리얀토 위보워 재정개발감사원(BPKP) 차관

파딜 임란 자바 북부 해안 관리청 차청장

누즈란 조헤르 옴부즈맨 위원장

라디안 샴 옴부즈맨 위원

와휴 하디닝랏 경찰청 차장 (경찰중장)

현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10·1 개각에 대해 “단순한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넘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밀한 체제 개편”이라며 “정치·외교·안보 등 전통적 권력 기구는 검증된 관료 및 군·경 핵심 인사로 틀어막고, 다운스트림과 에너지 등 정권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흘릴 장관에게 전권을 집중시켜 실행력을 끌어올리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권력 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총평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유도요노 전 대통령 부자’ 나란히 한국 국경일 행사 찾아… 한·인니 미래 잇는 ‘가교 역할’ 확인

- 주인니대사관 · 주아세안대표부,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 성황리 개최
- SBY 전 대통령과 아들 아구스 조정장관 동반 참석… 양국 우호의 깊이 과시
- 정 · 재계 인사 1,000여 명 집결… 첨단산업 · 방산 등 전략적 파트너십 재확인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주아세안대표부는 지난 10월 1일 자카르타 라플즈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친한(親韓) 인사이자 국가 원로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BY) 전 대통령과 그의 장남인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 부자가 나란히 한국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 각별한 한국 사랑을 드러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주아세안대표부는 지난 10월 1일 자카르타 라플즈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관계 주요 인사와 외교단, 동포사회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행사의 최대 관심사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 부자의 동반 참석이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제6대 대통령을 역임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과의 실질 협력을 대폭 끌어올린 주역이다.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인 지한파 지도자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핵심 실세이자 차세대 유력 정치 지도자로 부상한 장남 아구스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이번 유도요노 부자의 동반 참석을 두고 과거 정상 차원에서 다진 한-인니 우호 협력의 기조가 차세대 핵심 내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리셉션에는 유도요노 부자 외에도 로산 퍼르카사 루슬라니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술탄 박티아르 나자무딘 상원의장 등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의회의 핵심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주빈인 로산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철강, 배터리, 디지털 등 인도네시아의 핵심 미래 산업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라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양국의 미래 세대 공동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순구 주인도네시아대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간산업부터 친환경·디지털 분야까지 아우르며 인니의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을 함께 실현할 최적의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철 주아세안대사는 최근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기반으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관계 수립 후,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으로 한-아세안 관계가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정상이 2025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 -아세안 CSP 비전’*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아세안의 ‘조력자 (Contributor)’, ‘도약대(Springboard)’, ‘동반자(Partner)’로서, 한-아세안 공동 번영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지난 10월 1일 ‘대한민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이철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경제·안보 외교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행사장에는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9, G80 EV), HLI 배터리셀, LIG넥스원 사족보행 로봇, KAI의 IF-21 전투기 모형 등이 전시돼 첨단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실감케 했다.

이 밖에도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공연, K-푸드 및 할랄 한식 체험 부스, 전통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전직 국가원수와 현직 핵심 장관인 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국경일을 축하한 것은 양국 관계의 두터운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번 행사는 대를 이어 심화되는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한 계기”라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프라보워 대통령, 대통령 자문위원 26명 임명… 위원장에 프라틱노 전 장관

[자카르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일 자카르타 국가궁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문위원회(Dewan Pertimbang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Wantimpres RI) 위원 26명을 공식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Keppres) 제107/P호'에 따라 단행됐다.

이날 열린 임명식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직접 주재했다. 신임 자문위원들은 선서를 통해 1945년 헌법을 수호하고 제반 법령 및 공직 윤리를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진 서명식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재키 마누푸티와 이그나시우스 조난 위원을 제외한 24명이 대통령과 함께 임명 서약서 서명을 마쳤다. 행사에는 기브란 라카부밍 부통령과 주요 국가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새롭게 출범한 자문위원회의 수장에는 프라틱노 전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이 위촉됐다. 프라틱노 신임 위원장은 조코 위도도 정부 시절 국가사무처 장관과 가자마다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대표적 정책 전문가다. 부위원장에는 여러 정부에 걸쳐 장관직을 지낸 원로 정치인 무하마드 하타 라자사가, 간사에는 직전 정부소통청장을 지낸 무하마드 코다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대폭 확충됐다. 관료 및 경제계 출신으로는 아굼 구멜라르, 차이룰 탄중, 부디 구나완, 밤방 수사티오, 다토 스리 타히르 등이 포함됐으며, 종교·학계에서는 신타 누리야 와히드, 무하마드 쿠라이시 시합, 정치평론가 로키 게룽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개정된 '2024년 법률 제64호'에 근거하여 국가원수의 정책 결정에 다각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핵심 기구다.

프라틱노 신임 위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국정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년 대통령령 제107/P호에 따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프라틱노(Pratikno) - 위원장 겸 위원
2. 무하마드 하타 라자사(Muhammad Hatta Rajasa) - 부위원장 겸 위원
3. 무하마드 코다리(Muhammad Qodari) - 간사 겸 위원
4. 신타 누리야 와히드(Sinta Nuriyah Wahid) - 위원
5. 무하마드 쿠라이시 시합(Muhammad Quraish Shihab) - 위원
6. 아굼 구멜라르(Agum Gumelar) - 위원
7. 차이룰 탄중(Chairul Tanjung) - 위원
8. 사이드 아킬 시라즈(Said Aqiel Siradj) - 위원
9. 안와르 이스칸다르(Anwar Iskandar) - 위원
10. 야히아 콜릴 스타쿠프(Yahya Cholil Staquf) - 위원
11. 유수프 와난디(Jusuf Wanandi) - 위원
12. 부디 구나완(Budi Gunawan) - 위원
13. 밤방 수사티오(Bambang Soesatyo) - 위원
14. 살림 세가프 알주프리(Salim Segaf Al-Jufri) - 위원
15. 수카르워(Soekarwo) - 위원
16. 다토 스리 타히르(Dato' Sri Tahir) - 위원
17. 로키 게룽(Rocky Gerung) - 위원
18. 이다 바구스 푸르왈락사나(Ida Bagus Purwalaksana) - 위원
19. 필립 쿤초로 위자야(Philip Kuncoro Wijaya) - 위원
20. 부디 산토소 타누위보워(Budi Santoso Tanuwibowo) - 위원
21.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 위원
22. 모하마드 하타(Mohamad Hatta) - 위원
23. 유수프 함카(Jusuf Hamka) - 위원
24. 마르가리토 카미스(Margarito Kamis) - 위원
25. 재키 마누푸티(Jacky Manuputty) - 위원
26. 이그나시우스 조난(Ignasius Jonan) - 위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0월 2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문위원회(Dewan Pertimbang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Wantimpres RI) 위원 26명을 공식 임명했다. (Foto: Dok. Setkab)

현지 정가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프라보워-기브란 정부가 국정 체제를 공고히 정비하고 각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1면에 이어서]

법안 표결에 앞서 근로자 보호법안 실무위원회(Panja) 위원장이자 하원 제9위원회 부위원장인 푸티 사리(Putih Sari)는 심사 경과보고를 통해 "문제분석목록(DIM) 논의와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정부와의 면밀한 공동 검토를 거쳐 심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푸티 부위원장은 "이해하기 쉽고 근로자, 노무 제공 요청자, 사용자 및 정부 모두에게 확실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규정을 단일 법률 체계 내에서 통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원 제9위원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 보호법은 총 23장 3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보호법(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 주요 핵심 사항

1. 비공식 부문 근로자 (Tenaga kerja informal) 비공식 부문 사용자는 근로 시간, 업무 위험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운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공식 부문 근로자 역시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온전히 적용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2.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Tenaga kerja platform digital) 플랫폼 노동 환경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춰,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가 합당한 수입과 산업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사측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사전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트너십 제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차단(비활성화)하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PKWT) 무분별한 계약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을 최초 2년으로 명확히 제한했다. 계약 연장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 2회까지만 허용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4. 외주 근로계약 (Perjanjian alih daya / outsourcing) 사용자가 외주(아웃소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허용 대상은 ①청소 용역 사업, ②근로자 급식(케이터링) 제공 사업, ③경비·보안 인력 사업, ④광업 및 석유 부문 지원 서비스 사업, ⑤근로자 통근 운송 사업 등 오직 5가지 필수 지원 서비스 유형으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5. 근로 시간 (Waktu kerja) 법정 근로 시간의 기준을 재정비했다.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7시간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일 8시간 및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6. 휴가권 (Hak Cuti) 모성 보호 및 여성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다.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 기간 중 최대 2일의 생리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 특이 사유가 증명될 경우 추가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유급 원칙이 적용된다.

7. 임금 제도 (Pengupahan) 최저임금 제도를 공고히 하고, 비례적 임금 체계 및 직급별 임금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초과근로수당 기준, 특정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근 및 노무 미제공 시의 임금 보전 규정, 임금 지급 방식 및 공제 가능 한도, 기타 제반 권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다.

8. 복리후생 (Kesejahteraan)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이 누려야 할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보장보험, 퇴직연금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퇴직금 보장 제도 등 국가 주요 사회보장 혜택에 전면 편입될 권리를 갖는다.

9. 근로계약 해지 (Pemutusan hubungan kerja, PHK)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조정(해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단계적 자구 노력 조치를 의무화했다.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과 명확한 해고 사유를 규정했으며, 근속 연수에 부합하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사항을 상세히 명문화했다.

10. 퇴직금 (Pesangon)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PHK)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퇴직금(uang pesangon), 근속 공로금(uang penghargaan masa kerja), 미사용 연차 등에 대한 권리 보상금(uang penggantian hak)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퇴직금 보장 프로그램'을 공식 신설하고, 사업주의 해당 프로그램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프라보워 印尼 대통령, 경찰청장 전격 교체… 수유디 아리오 세토 신임 청장 취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을 면직하고, 후임으로 수유디 아리오 세토 국가마약청(BNN) 청장(경찰중장)을 신임 경찰청장(대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서한(Surpres 제R57호)을 인도네시아 의회(DPR)에 정식 발송했다. 의회는 서한 접수 직후 즉각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하비부록만 국회 제3위원회(법제·사법·인권) 위원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임 청장 단독 후보로 지명된 수유디 중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적격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 열린 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리스티요 시깃 청장의 면직안과 수유디 신임 청장의 임명 동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리스티요 시깃 청장의 면직은 정년 문제와는 무관하며, 임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치안 총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인준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의회 인준 직후 프라보워 대통령은 1일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을 전격 거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관련 대통령령(제96호)에 따라 수유디 신임 청장에게 대장 계급장을 수여하고 직무 표장을 패용했다. 아울러 신임 경찰차장(치안정감급)에는 와휴 하디닝랏 중장이 임명되었다.

수유디 신임 경찰청장은 1994년 경찰사관학교(Akpol)를 졸업한 정통 수사·형사통으로,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차장과 반텐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직전까지 국가마약청장을 역임했다. 수유디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표방하며 사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즉각 대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 치안정감을 경찰청장(Kapolri)으로, 와휴 하디닝랏 경찰 치안정감을 경찰차장(Wakapolri)으로 임명했다. 임명식은 대통령궁에서 거행되었다. (01/10/2026). (Foto: Setneg)

한편, 이번 인사로 물러난 리스티요 시깃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래 약 5년 8개월간 재임하며,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 개혁(Reformasi) 이후 역대 최장수 경찰청장 기록을 남기고 명예롭게 퇴임하게 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최장수 경찰총수' 리스티오 시깃,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대장을 대통령 비서실장(KSP)으로 임명했다. (Foto: Istimewa)

[자카르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대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KSP)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프라보워 정부의 '메라 푸티(적백)' 내각 개편의 일환으로 단행되었으며, 리스티오는 전임 두둥 압두라흐만 예비역 육군 대장의 뒤를 이어 대통령실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리스티오는 프라보워 대통령 주재하에 취임 선서를 마쳤다. 리스티오는 선서를 통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을 충실히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을 다하기 위해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정히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리스티오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어온 경찰청장 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했다.

리스티오의 후임 경찰청장에는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중장이 임명되었다. 수유디 신임 청장은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 제3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인준을 받았으며, 이날 대통령궁에서 리스티오와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개편을 통해 바흘릴 라하달리아 하류화·에너지조정장관, 아르마나타 나시르 외교장관, 사르무지 산업장관, 데디 프라세티오 국가토지개혁청장, 파딜 임란 북부해안개발청 차장(경찰중장) 등 주요 부처 및 정부기관의 핵심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수사통 출신 '최장수 경찰총수'… 대통령실로 무대 옮겨

신임 리스티오 비서실장은 인도네시아 민주화(레포르마시) 이후 최장수 경찰청장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1991년 경찰사관학교(Akpol)를 졸업한 그는 경력의 상당 부분을 수사 부서에서 보낸 정통 '수사통'으로 꼽힌다.

파티·수코하르조·수라카르타 경찰서장 등을 거친 리스티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경호부관을 지내며 정권 핵심부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후 반텐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전문직윤리국장(Kadiv Propam)을 거쳐 2019년 경찰청 범죄수사국장(Kabareskrim)에 올랐다. 그는 범죄수사국장 재임 당시 부패방지위원회(KPK) 수사관 염산 테러 사건과 거물급 금융 비리범 조코 찬드라 송환 수사 등을 지휘하며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2021년 1월 경찰청장으로 발탁된 그는 5년 8개월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인도네시아 헌정사상 두 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KPK)의 2025년 공직자 재산신고(LHKPN)에 따르면 리스티오 비서실장의 총자산은 약 153억 루피아(한화 약 13억 원) 규모로, 스마랑과 자카르타 일대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넘게 치안 총수로 활약한 리스티오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프라보워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JEJU 2026

초 대 장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우리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선전과 건투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출정식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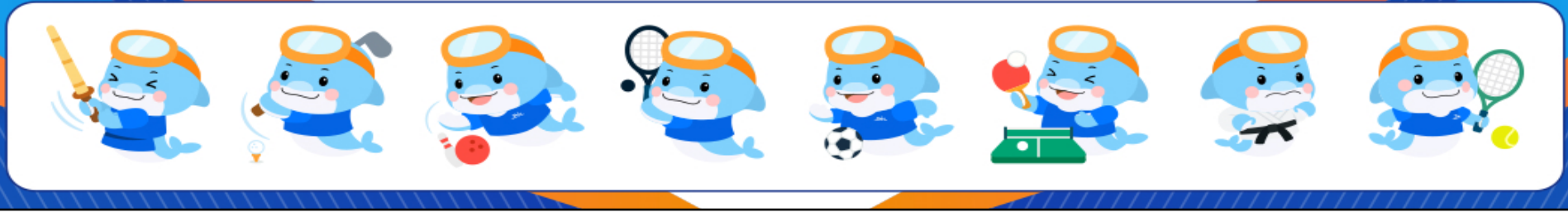


2025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강당
선수단 복장	붉은색 단복 착용
	(단복이 없는 분은 긴팔 바틱 또는 한복 착용)
참석문의	사무국 / 김종희 사무총장 0815-1902-0341

회장 김태화
단장 양영연 / 기수 김희익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대통령 자문위 26인 월 급여 총액 20억 육박…‘장관급 예우’ 더하면 재정 부담

- 2026년 대통령령 제15호 공포… 위원 1인당 월 7,650만 루피아 지급
- 기본 보수만 연간 238억 루피아 규모, 전액 국가예산(APBN) 충당
- 정책 집행권 없는 자문기구에 막대한 혈세 투입… “역할 · 기여도 검증 불가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공식 출범시킨 제26대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돼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원 26인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수 총액만 월 20억 루피아(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 육박하며, 여기에 장관급에 준하는 각종 의전 및 편의 혜택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국고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확정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재정적 권리 및 기타 편의 제공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Perpres) 제15호’에 따르면, 자문위원단 전원에게는 1인당 매월 7,650만 루피아(약 657만 원)의 재정적 처우(보수)가 지급된다. 직책에 따른 차등 없이 위원장과 일반 위원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26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순수 보수 총액은 19억 8,900만 루피아에 달한다. 이를 연간 예산으로 환산하면 약 238억 6,800만 루피아(약 20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규정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공개된 금액이 ‘기본 보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해당 대통령령 제6조는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내각 장관에 준하는 수준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차량, 통신, 보안, 의료 등 장관급 예우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은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되지 않아, 부가 혜택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집행되는 국가 재정 규모는 집계된 기본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투입되는 모든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APBN)에서 충당된다.

자문위원회의 이 같은 대규모 예산 편성을 두고 현지에서는 공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적 기구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국가 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권한이 없으며, 오직 국가원수에게 정무적·정책적 조언을 건네는 순수 자문 역할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0월 2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문위원회(Dewan Pertimbang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Wantimpres RI) 위원 26명을 공식 임명했다. (Sekretariat Presiden.)

프라티크노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륜은 국가원수가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문위원단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의 감시는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우성 기구에 머물지 않고 국정 운영에 실질적이고 질 높은 정책 제언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이번 대규모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불법 산림지역 정비 TF’ 성과 격려… 국고 환수액 52조 루피아 달성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산림지역 정비 태스크포스(Satgas PKH)의 불법 행위 단속 및 국가 자산 환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까지 태스크포스가 여덟 차례에 걸쳐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총 52조 루피아(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6일 자카르타 검찰총장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벌금 부과금 및 국가 재정 보호, 산림지역 재점유 인계식’에 직접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개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가 자산을 수호한 실질적인 결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지켜낸 52조 루피아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중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Satgas PKH는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을 통해 13조 2,413억여 루피아의 국고 환수금과 더불어 25만 9,230헥타르 규모의 산림지역 관리권을 국가에 정식으로 인계했다. 해당 자금은 재무부를 거쳐 전액 국고로 납입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검찰청 청사 경내에서 재무부를 통해 진행된 PKH 태스크포스(Satgas PKH)의 행정 과징금 국고 귀속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6/10/2026). Foto: BPMI Setpres/ Muchlis Jr.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면한 위협과 저항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은 “국가 자산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유·무형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배후 세력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더라도 정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의 이익과 법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와 밀수, 마약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저해하는 각종 구조적 범죄 척결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지난 2025년 출범한 Satgas PKH는 무단 점유된 산림지역을 정상화하고 불법 개발 행위를 단속해 국가 재정을 회복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ELLINGTON COLLEGE
INDEPENDENT SCHOOL
JAKARTA

오픈 데이

2027-2028학년도

2026년 10월 17일
오전 9시- 오후 12시

입학생 모집
유아부~5학년



wellingtoncollege.sch.id

[사설] 인도네시아 '근로자 보호법' 통과, 외투기업 경영 패러다임 전면 수정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

인도네시아 하원(DPR)이 총 23개 장, 313개 조항으로 구성된 '근로자 보호법(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만장일치로 전격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에 따라, 기존 일자리 창출법(Omnibus Law)에서 노동 부문을 완전히 떼어내 별도의 단일 독립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하원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노동계 대표단이 대거 방청하고 프라보워 행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점은,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의 무게 추가 노동 유연성에서 노동자 권익 및 고용 안정 쪽으로 급격히 회귀했음을 웅변한다.

이번 법 제정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과 노무 전략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온 제조·서비스·물류 부문 외투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규범적 틀 안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현지 법인을 이끄는 외국인 기업 경영자들이 유의하고 직시해야 할 핵심 사안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외주(아웃소싱) 인력 활용의 문이 사실상 닫혔다. 신법은 외주 허용 범위를 청소, 급식(케이터링), 경비, 광업·석유 지원, 통근 운송 등 5대 비핵심 지원 서비스로 엄격히 제한했다. 그동안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물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던 생산 보조 및 일반 노무 아웃소싱은 명백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기업들은 즉각 자사의 도급 및 외주 구조를 재점검하고, 필수 공정에 투입된 인력을 정규직 또는 적법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공급망 및 인력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둘째, 기간제 근로계약(PKWT)의 통제가 한층 가혹해졌다. 계약직 고용 기간을 최초 2년으로 못 박고, 연장은 1년 한도로 최대 2회까지만 허용했다. 이는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비정규직을 장기 유지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한 조치다.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현지 경영진은 정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막대한 우발채무와 법적 분쟁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셋째, 고용종료(PHK) 절차의 강화와 퇴직금 체계 복원으로 인한 출구 전략의 비용 급증이다. 신법은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전 자구 노력과 엄격한 법정 해고 요건을 명문화했다. 나아가 비자발적 계약 해지 시 법정 퇴직금, 근속 공로금, 권리 보상금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대폭 키웠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고숙련·고효율 중심의 인재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적격 인력에 대한 퇴출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법정 근로시간 규제 준수와 모성 보호 휴가 확대에 따른 실질 가동률 관리다. 주 5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와 주 6일제(1일 7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법적 상한이 명확해진 가운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월 2일의 생리휴가와 기본 3개월에 건강상 사유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유급 출산휴가가 법제화됐다. 특히 섬유·의류·신발·전자조립 등 여초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대체 인력 확보 비용을 상쇄할 정교한 노무 관리 시스템과 자동화 투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다섯째, 디지털 플랫폼 및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의 신설이다.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일방적 계약 해지나 계정 차단이 금지되고, 산업안전 및 공정 보수 보장 의무가 부과되었다. 물류·배송, O2O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외투기업은 기존의 '독립계약자' 중심 노무 모델을 전면 수정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헤지해야 한다.

그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해 왔으나, 현재 판결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수렴하며 노동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설정했다. 이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에 의존하던 인도네시아 진출의 낭만적 시대는 저물었다. 법 위반에 따른 당국의 처벌은 물론, 현지 노조의 집단행동 리스크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현지 외국인 경영진은 법 시행에 앞서 사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PKB), 개별 근로계약서를 313개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비용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생산성 중심의 인사평가와 노사 상생의 신뢰 경영을 구축해야만 격변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www.zimmoah.com



AIR CONSOLIDATION

Incheon
Los Angeles
Daily
2 times / week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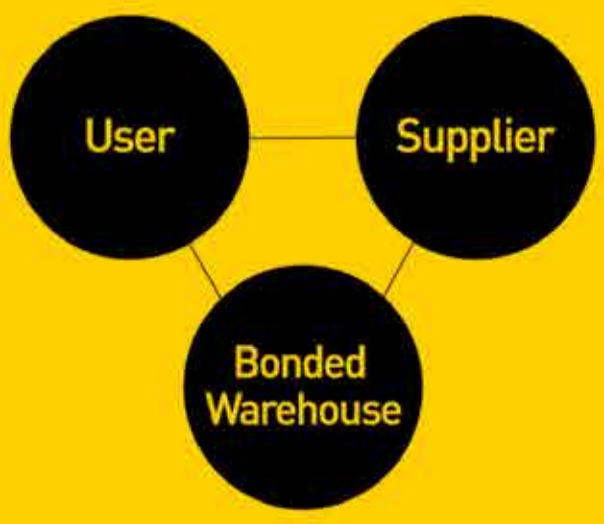
ZIMMOAH

Tel : +(62-21) 2936 5670 (ext 245)
E-mail : AIRcargo@zimmoah.com

LCL CONSOLIDATION



Bonded Warehouse
Biz Model



1. Trading Agency
2. Purchasing Agency
3. Consignment Agency

Tel : +(62-21) 2937 5670 (ext 231)
E-mail : LCLcargo@zimmoah.com

PT. RLC Indonesia

Direct : +(62)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ZIMMOAH

HEAD OFFICE
Kirana Commercial Avenue. Jl. Kirana Avenue 2 Blok D2 No. 10-1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21) 2937 5670 (Hunting) Fax : +(62-21) 2937 5671
E-mail : zimmoah@zimmoah.com www.zimmoah.com

BRANCH OFFICE

SEMARANG	+62 24 351 7198	semarang@zimmoah.com
AIRPORT	+62 21 5591 1853	aircargo@zimmoah.com
HOCHIMINH	+84 28 3776 0107	cargobuscm@cargobuslogitec.com
HANOI	+84 24 3221 6249	cargobushn@cargobuslogitec.com

IATA AIRLINES PARTNERS KOREAN AIR ASIANA AIRLINES Garuda Indonesia CHINA AIRLINES QANTAS ETIHAD AIRWAYS PARTNER Emirates

한투證 인니법인, 신규계좌 8개월 새 49% 증가… '한-인니 자본 가교' 역할 굳힌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한인포스트】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이하 KISI)이 올해 들어 신규 고객 유입과 채권 부문 성과를 앞세워 현지 자본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리테일 고객 기반은 8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늘었고, 투자은행(IB) 부문은 인도네시아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주관과 자카르타 도심 내 18MW 규모 데이터센터 PF 자문 등 한국 자본과 인도네시아 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굳혀가고 있다.

신규계좌 1~8월 3만1,770개…시장 신규 계좌 점유율 2.1%

29일 KISI에 따르면 KISI의 주식거래 계좌 수는 8월 말 기준 9만6,327개로 지난해 말(6만4,557개) 대비 49.2% 증가했다. 1~8월 신규 개설 계좌는 3만1,770개로,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증시 전체 신규 주식투자자(SID) 증가분(약 153만명)의 2.1%에 해당한다. 5월 한 달에는 신규계좌 점유율이 4.9%까지 올라갔다.

2분기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1만9,016건으로 1분기(4,975건) 대비 282% 급증했다. 5~6월 진행한 트레이딩 대회 'KISI 챌린지: Step Higher'에 1만명 이상이 참가해 15조7,000억 루피아(약 1조3,300억원)를 거래한 효과가 컸다.

주식 거래 점유율 7월 1.09%…채권은 전년 대비 2배

고객 기반 확대는 거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KISI의 주식 거래대금 점유율은 2024년 0.81%, 2025년 0.91%에서 올해 1~8월 0.98%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월간으로는 5월 1.24%, 7월 1.09%, 8월 1.00%를 기록하며 1%대에 안착하는 추세다.

채권 부문의 상승 폭은 더 크다. 8월 누적 채권 거래대금은 2.7조원으로 전년동기(1.2조원) 대비 128% 증가했고, 회사채 발행시장 점유율도 1.8%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다.

10월 'KISI 챌린지: Beyond Tomorrow'…1등 상품은 전기차

KISI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전투자대회 'KISI 챌린지: Beyond Tomorrow'를 연다. 일반 부문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일반 부문 경품만 2백여 개, 총 23억6,000만 루피아(약 2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1등 상품으로 BYD Denza D9 전기차(9억5,000만 루피아, 약 8,100만원)를 내걸었고, Jaecoo J5 전기차와 Honda Forza 250 오토바이, 한국 왕복 여행 상품 (2인·5팀), 아이폰 17 프로 등을 준비했다. 대학생 부문은 수익률·계좌개설·거래건수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시상한다.

iKISI에 'AI 센티먼트 스코어' 도입…채권 매매 기능도 선보일 예정

KISI는 최근 자체 투자 플랫폼 iKISI에 'AI 센티먼트 스코어(AI Sentiment Score)'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특정 종목과 관련된 뉴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수집된 뉴스를 기반으로 시장의 긍정·부정 등 감성 경향을 분석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투자자는 종목별 주요 뉴스와 시장 동향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AI 센티먼트 스코어는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및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KISI는 이와 함께 채권 매매 기능도 개발 중이다. 주식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넘어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뮤추얼펀드 상품 라인업도 확대했다. iKISI에는 수코르자산운용(PT Sucorinvest Asset Management)의 뮤추얼펀드 13개 상품이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상품은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iKISI에서 거래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는 기존보다 확대돼 총 15개 운용사, 91개 상품으로 늘어났다.

KISI는 AI 기반 투자정보 제공과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iKISI를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정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부 수마트라주정부와 지방채 발행 논의…지방정부 협력 확대

KISI는 투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투자 및 지방정부 재원조달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KISI는 2026년 8월 서부 수마트라 주정부(Pemerintah Provinsi Sumatra Barat)와 만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인 지방수쿠크(Sukuk Daerah) 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당 협의에는 KISI 양석모 온라인사업부 이사, KISI IB팀을 비롯해 마헬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 수마트라 주지사, 서부 수마트라 주정부가 구성한 부채관리팀(Debt Management Unit·DMU) 및 주정부·지역개발계획청(Bapped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KISI는 2027년 지방수쿠크 발행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주관 관련 실무 및 기술적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채(Municipal Bonds) 사례와 관련한 자료 및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수쿠크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서부 수마트라 주정부 DMU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한편, KISI는 서부 수마트라 주정부와의 협력 외에도 각 공무원(PNS)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부 수마트라(Sumatra Utara)에서는 세르당 베다가이(Serdang Bedagai), 만다일링 나탈(Mandailing Natal) 등 지방정부 및 빈자이(Binjai) 시정부와 자본시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카블리퉁(Bangka Belitung)에서는 방카 틍아(Bangka Tengah), 벨리퉁 티무르(Belitung Timur), 방카 슬라탄(Bangka Selatan) 지방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아체(Aceh)에서는 나간 라야(Nagan Raya) 지방정부와 자본시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쿨론 프로고(Kulon Progo)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단위의 금융교육과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경훈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장(오른쪽)은 알파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2025 인도네시아 최우수 로컬통화 채권 발행사'상을 수상받고 있다. 2026년 2월

인니 최초 SLB·데이터센터 PF…한국 자본의 인니 투자 창구

IB 부문에서는 한국계 자본을 인도네시아 주식·채권·인프라로 연결하는 역할이 두드러진다. KISI는 지난 2월 아시아 금융 전문지 알파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로부터 '2025 인도네시아 최우수 로컬통화 채권 발행사'상을 받았다. 2024년 '최우수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사'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KISI의 지난해 채권 인수 실적은 51건, 3조3,800억 루피아(약 2,870억원)이다.

특히 2024년 7월 인도네시아 최대 강관 제조사 스핀도(Spindo)의 1조 루피아(약 850억원) 규모 채권을 공동 대표 주관하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을 성사시켰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보증을 붙여 국내 신용등급 AAA를 확보하는 등 해외 선진 구조화 기법을 현지 시장에 도입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12월에는 폴룩스호텔그룹의 5,000억 루피아(약 420억원) SLB를 단독 주관했다.

한국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이어지고 있다. KISI는 2020년 11월 인도네시아 최대 제지업체 APP그룹 계열사의 5,500만달러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를 시작으로 2021년 6,500만달러, 2023년 12월 8,500만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00만달러 규모의 김치본드 발행을 주관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이 한국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 왔다.

인프라 투자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KISI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KIRA)과 시나르마스그룹 계열 SM+의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합작투자를 부지 발굴부터 파트너 선정, 투자 구조 설계,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2년 넘게 자문했다. 2024년 7월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 프로젝트는 올해 11월 LG CNS와 함께 자카르타 쿠닝안에서 데이터센터(SMX01) 완공식이 예정 되어있다.

위탁수수료 수익 87%↑…하반기 IB 딜 준비

리테일 부문의 수익 기반도 넓어지고 있다. 상반기 주식 위탁수수료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87% 늘었고 신용공여 이자수익도 39% 증가했다.

남경훈 KISI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 자본이 인도네시아 채권과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KISI의 역할"이라며 "지방 정부와의 금융교육 협력, 지속가능채권 등 선진 구조화 상품, 인프라 투자 자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ISI는 하반기 트레이딩 챌린지와 지방정부 교육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들어 10여건의 채권·수쿠크 발행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데 이어 연말까지 회사채와 중기채(MTN) 등 2조 루피아 안팎의 발행을 주관사로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 산림구역 단속 TF, 불법 수익금 13조 2,400억 루피아 국고 귀속

행정 과태료 · 체납 세금 등 환수 완료… 여의도 면적 수백 배 달하는 산림 25만여 헥타르도 국가 환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구역 내 불법 행위를 전방위로 단속하여 확보한 13조 2,4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 1,400억 원 상당) 규모의 자금을 국고로 전격 귀속 조치했다.

인도네시아 산림구역 단속 태스크포스(Satgas PKH)는 남부 자카르타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8차 자금 및 토지 환수 인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여 국가 천연자원 보호와 법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 재무부를 통해 국고에 납입된 금액은 총 13조 2,413억 3,568만 루피아에 달한다. 해당 자금은 산림 내 위법 행위 단속을 통해 징수한 행정 과태료, 검찰 특별형사사건 처리에 따른 비과세 국세수입(PNBP), 그리고 단속 후속 조치로 거둬들인 체납 세금 등으로 구성됐다.

Satgas PKH 운영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규정을 위반한 산림구역 이용 실태를 바로잡고 국가 재정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세부 환수 내역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환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세금 수입으로, 약 8조 2,298억 루피아에 달했다. 이어 산림 부문 행정 과태료가 약 3조 4,757억 루피아, 검찰의 비과세 국세수입이 약 1조 5,357억 루피아로 뒤를 이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이 환수 자금을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공식 국고 귀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법적 권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자원이 국민의 번영을 위해 온전히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역할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법 집행은 국내 위법 행위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은닉되거나 이전된 범죄 수익의 흐름까지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atgas PKH는 막대한 재정 수입 환수와 더불어 총 25만 9,230.73헥타르에 달하는 불법 점유 산림구역 토지도 국가로 환수했다. 환수된 토지 중 플랜테이션(농원) 부문 14만여 헥타르는 산림부로 인계된 뒤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보전림 및 보호림 구역 11만 8,000여 헥타르는 산림 복원 및 재조림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산 부문 토지 211.95헥타르 역시 산림부로 이관됐다.



자카르타 대검찰청 청사에서 산림지역단속 태스크포스(Satgas PKH) 지도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산림 구역 단속을 통해 환수한 13조 2,000억 루피아를 재무부 장관 전달하고 있다.(6/10/2026).

지난 2025년 2월 출범한 Satgas PKH는 불법 산림 점유 및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총 8차례에 걸친 대규모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eekly Global FX Market Monitor

2026.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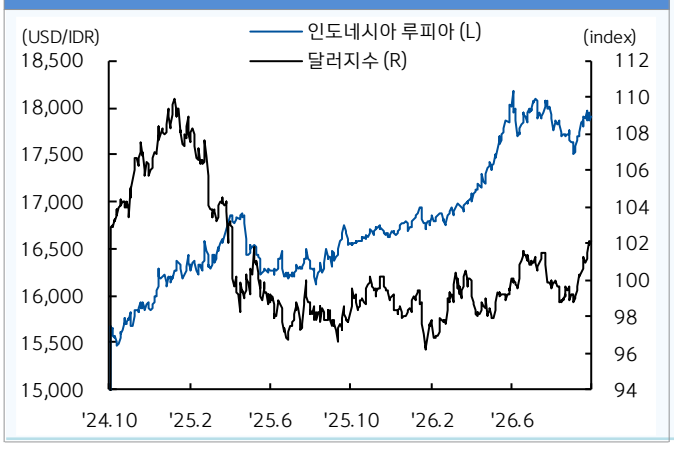
Indonesia

신한은행 S&T센터 소재용
02-2151-2638, jyso@shinhan.com

환율(USD/IDR)	17,907
52주최고	18,190
52주최저	16,520
주가(Jakarta index)	6,119
52주최고	9,174
52주최저	5,318
국채금리(10년물,%)	7.19
52주최고	7.51
52주최저	5.94
주요 경제 지표 Snap shot	
실질GDP성장률(%,YoY)	5.29
소비자물가(%,YoY)	3.28
생산자물가(%,YoY)	6.18
정책금리(%)	5.75
제조업 PMI (index)	52.4
산업생산(%,YoY)	1.66
소매판매(%,YoY)	0.50
수출(%,YoY)	6.72
수입(%,YoY)	19.09
경상수지(백만달러)	-12,487
재정수지(십억루피아)	-509,161
외환보유고(십억달러)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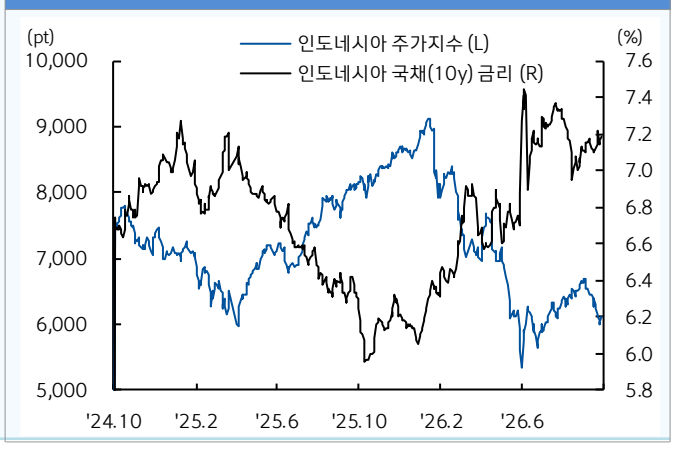
- 지난 주(9/28~10/5) USD/IDR(market rate)는 17,870~17,975 흐름(블룸버그 종가), 전주 대비 강세(0.38%)
-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루피아 환율 상승 압력 노출되었으나, 인니 외환당국의 18,000선 방어 의지 아래 9월 인니 CPI가 시장 기대치를 대체로 부합하면서 BI의 긴축 경계감 다소 진정되며 추가 상승 억제
- 외국인은 지난 주 6영업일 간(9/28~10/5)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순매도 채권시장은 순매수 기록
  - 주식: 외국인 순매도(9/29~10/5 누적: 2억 8,713만 달러) 기록, 자카르타 주가지수 하락(-0.47%)
  - 채권: 외국인 순매수(9/28~10/2 누적: 2억 5,513만 달러) 기록, 금리 상승(10y, 7.19%, 4.90bp)
- 9월 CPI(3.28%)가 목표 범위 하회하며 추가 금리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국제유가와 선진국 통화긴축 전한 등으로 BI 긴축 종결 기대는 시기상조. 미국채 금리 급등과 맞물려 인니 채권도 약세 흐름
- 인니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로 상방 위험 억제되고 있지만, DXY가 102p대로 올라서는 달러 강세 흐름을 역행하기는 어려울 듯. 미 고용 안도에도 물가 발표 경계감 노출될 전망(금주 예상 레인지 : 17,880~17,980)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인도네시아 주가지수와 국채 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RE:BOOT Shinhan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9월 산업신뢰지수 51.93으로 하락… 재고 누적에 제조업 생산 둔화 조짐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 산업부 대변인 Juru Bicara Kemenperin Febri Hendri Antoni Arief, (Dok. Istimewa Kemenperin)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완제품 재고 증가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월 30일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산업신뢰지수(IKI)는 51.93을 기록해 전월(52.30) 대비 0.3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월(53.02)과 비교해도 1.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수가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웃돌아 성장 국면은 유지했으나, 상승 탄력은 눈에 띄게 꺾였다.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및 물류비 압박이 가중된 데다, 슈퍼 엘니뇨 현상 등 국내 위험 요인이 겹치면서 제조업 전반의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전월 대비 0.27포인트 상승한 53.40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요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 흐름이 실제 생산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2포인트 하락한 53.78로 주저앉았으며, 제품 재고 지수 역시 45.45로 0.57포인트 떨어져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완제품 재고 누적과 생산 비용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이 출하 및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비석유가스 제조업 GDP의 84.4%를 차지하는 15개 하위 부문이 확장을 기록하며 전체 지수를 지지했다. 특히 음료 제조업(KBLI 11)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KBLI 30)의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자·광학기기(KBLI 26), 전기장비(KBLI 27), 가죽·신발(KBLI 15), 화학·플라스틱(KBLI 22) 등 8개 부문은 위축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별로는 수출 지향 제조업 IKI가 52.60으로 전월(53.09)보다 0.49포인트 하락했고, 내수 지향 제조업 IKI 역시 50.94로 전월(51.13) 대비 0.19포인트 낮아져 전반적인 경기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페브리 대변인은 "9월 전반적인 경영 환경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응답 기업의 77.9%는 여전히 경영 활동이 호전되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수와 수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KOSM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CIENCE TECHNO PARK UNIVERSITAS INDONESIA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글로벌 인재 매칭의 장

K-Work Bridge Job Fair

지금, 인도네시아 우수한 인재와
함께 할 한국 기업을 기다립니다!



K-Work Bridge 소개

K-Work Bridge는 중진공(KOSME)이 STP Universitas Indonesia 및 Jendela Asa Indonesia(JAI) 재단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인도네시아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한국 소재 중소기업과의 취업 매칭을 지원합니다.

준비된 인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

기업 모집 : 9월 21일 ~ 10월 23일
매칭 기간 : 10월 1일 ~ 11월 12일
채용 박람회 : 11월 12일 (KOSME GBC)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기회

- K-Work Bridge의 우수한 인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 기업의 채용 기준에 맞춘 맞춤형 인재 추천
- 채용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인 인재 채용 지원
- 다양한 직무 분야의 인재 모집 가능

채용 진행 절차

※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1. **기업 채용 수요 전달**
   기업 → JAI
   원하는 직무와 채용 조건을 JAI에 알려주세요
2. **후보자 매칭 및 검토**
   JAI가 기업의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3. **적합 후보자 매칭**
   JAI → 기업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선별하여 추천합니다.
4. **이력서 검토 후 면접 결정**
   기업이 후보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기업의 최종 선발**
   면접 후 기업이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인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K-Work Bridge 1기·2기 수료생과 Korea Track 참가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공 및 경력 | 한국어 능력 | 직무 적합성 | 기업 요구 조건

※ JAI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별하여 매칭합니다.

모집 가능한 직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 기술직
- 생산직
- QC
- 그 외 다양한 직무
- 통번역
- HR & Legal
- Accounting & Tax
- Sales & Marketing

지금, K-Work Bridge Job Fair에
모집기업으로 참여하세요!
기업의 채용 수요를 알려주시면, JAI가 최적의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문의처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62 822-8563-7228 / Cicilia
jendela.org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제 7 회
남 국 문 학 상
공 모

한국문인협회 싱가포르 지부에서
역량 있는 한인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7회 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동남아 지역 한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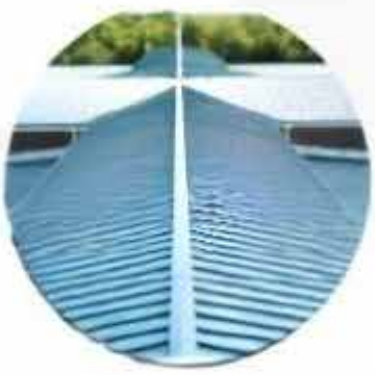
공모부문	시, 수필, 동화, 단편소설
원고분량	시 3편, 수필 2편, 단편소설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동화 2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응모자격	2026년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5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 (5개국: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상내역	최우수상, 부문별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등단 작가로 예우합니다.
마 감	2026년 10월 10일(원고 도착일 기준)
발 표	2026년 10월 24일(예정)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응모요령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로 각종 매체에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응모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원고송부	이메일 접수 / PDF 파일 첨부 및 송부 Sing1313@hotmail.com 이메일 제목은 아래와 같이 통일해 주세요. 2026년 남국문학상공모 / 이름 / 응모부문 / 거주국가 / 전화번호
기타문의	ycholefevre@gmail.com yujinkim2005@gmail.com
인스타그램	@Singapore_kwa

한국문인협회 싱가포르 지부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한강 변 물들인 '역동의 인도네시아'…
'2026 인도네시아 축제' 성황리 개최

- 한-인니 수교 53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기념
- 문화·음식·스포츠 아우르는 민간 교류의 장 펼쳐져



'Festival Indonesia 2026'에서 체첩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축사. 2026.10.4.사진 인도네시아외교부



한강 공원서 열린 2026 Festival Indonesia에서 인도네시아 문화 행사' 2026.10.4.사진 인도네시아외교부

[서울=한인포스트]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우정을 확인하고 문화적 교류를 심화하는 '2026 인도네시아 축제(Festival Indonesia 2026)'가 10월 4일(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역동하는 인도네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의 발전(Indonesia in Motion: Advancing Partnership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장에는 한국 시민들과 재한 인도네시아 교민, 외교 사절단,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려 현대 인도네시아의 역동적인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외교 리셉션을 겸해 진행된 이번 축제는 인도네시아 독립 81주년과 인도네시아 국군(TNI) 창설 81주년, 그리고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3주년을 함께 기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체첩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 주제는 산업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여정과 더불어, 단순한 우호를 넘어 전략적 신뢰와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CSP)'로 격상된 만큼, 이러한 정치적 신뢰를 양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구체적인 협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빈으로 참석한 정의혜 외교부 정무실장(차관보) 역시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루며 공동 번영과 지속적인 우호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축제 현장은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과 민속놀이, 무용, 전통 대중음악인 당둣(Dangdut) 공연 등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외교부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동 추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라사 키타(Rasa Kita, 우리의 맛)'에서는 양국 식문화를 융합한 요리가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양국 문화의 조화를 다룬 단편영화 '삼발 떡볶이(Sambal Tteokbokki)'의 상영회 및 제작진 토크가 진행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출신 프로배구 스타 메가와티를 비롯해 아이돌 그룹 소디엑(XODIAC)의 자얀, 방송인 디타 카랑, 크리에이터 '한솔'과 '킴밥 패밀리' 등 양국을 잇는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헤라완 대사는 "양국 파트너십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 간의 유대가 협력에 영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LX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자파(JAPFA), 페르타미나(Pertamina), 알람트리(AlamTri), KCC 글라스, 동자바 다목적 터미널(East Java Multipurpose Terminal), LIG, 에코프로, 현대, 인도네시아 국립은행(BNI), KMK그룹, 스타에너지(Star Energy), GK 비즈니스 자문 및 전략적 제휴(GK Business Advisory & Strategic Alliances), 페르타미나 훌루 에네르기(Pertamina Hulu Energi), 한화오션, 신한은행, 동성화학, 자카르타 수도주 정부(DKI Jakarta),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이솔라 불레렝 코스트 와인(ISOLA Buleleng Coast Wine), 인디푸드(Indofood), 하나피아(HANAPIA CO., LTD), 두아 크린치(Dua Kelinci), 마요라(Mayora)가 후원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종합)

PT. BIC JAYA INDONESIA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가야성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New!
자연을 마시다,
리얼 코코넛!
지금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개 구매 시
45K
2개 구매 시
더~욱 저렴하게!
75K
100% REAL COCONUT
시원하게! 건강하게! 코코넛 한 잔의 힐링!
100% 자연 그대로
수분 가득 수분 보충
저칼로리 건강한 선택
시원하고 상쾌하게!
예약 문의
081295094658
지금이 기회!
한정 기간 특별 가격 놓치지 마세요!
COCONUT
Fresh & Natural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보건부, 환자 심장 내 의료용 와이어 잔류 의혹에 조사단 급파… “과실 확인 시 엄중 문책”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가 동칼리만탄주 사마린다의 한 공립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환자의 체내에 의료용 유도철선(가이드와이어)이 방치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단테 삭소노 하르부워노 보건부 차관은 30일 자카르타 정부소통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 보건부 감찰국(Itjen) 차원의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테 차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과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업윤리징계위원회(MPD)를 소집해 관련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확약했다.

단테 차관은 “과실로 판명될 경우 합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구성된 직업윤리징계위원회를 통해 사실 규명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9일, 사마린다 소재 압둘 와합 샤라니(AWS) 지역 국립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 에디얀토 웡(63) 씨는 해당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삽입술(카테터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심장 혈관 내에 약 2cm 길이의 카테터 와이어가 잔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얀토 씨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해당 이물질은 시술 직후인 2월 22일, 환자가 싱가포르 마운트 엘리자베스 노베나 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카테터 시술을 받던 중 뒤늦게 발견됐다. 싱가포르 의료진은 해당 와이어가 앞서 진행된 시술 과정에서 잔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가족 측은 “싱가포르 병원 측으로부터 와이어의 안전한 제거가 불가능해 심장에 영구적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AWS 병원 측을 상대로 명확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보건부는 파견된 감찰국의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 유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예정이다.


환자 심장에 철사가 남아 있는 상태의 X선 촬영 결과. (Dok. Istimewa/Keluarga pasien)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수라바야 상가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 5명 부상·건물 41개 동 파손

[수라바야=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시의 한 번화가 상가 단지에서 강력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 41개 동과 차량 다수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오전, 수라바야시 물료레조구 칼리사리 우타라 1번가에 위치한 ‘파쿠원 시티 산 안토니오’ 상가 단지 내 요식업소 ‘나시 템퐁 스리 데위(Nasi Tempong Sri Dewi)’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는 식당 관계자들이 영업 개시를 위해 음식 조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사고 식당을 비롯한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일제히 깨졌으며, 비산된 건축 자재 파편이 도로와 주변 건물을 덮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피해자 전원 화상 입어… 2명 중환자실 입원 예정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성 4명, 여성 1명 등 총 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얼굴과 목, 양손 등에 13~18%가량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라바야 하지(Haji) 국립종합병원 마스루르 홍보팀장은 “부상자 중 4명이 하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부상 정도가 심한 남성 2명은 닥터 수토모(Dr Soetomo)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ICU)에 입원 치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 상태가 가장 위중했던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초기부터 닥터 수토모 병원으로 직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 건물 41개 동·차량 16대 파손… 후면 민가까지 피해 번져

폭발의 위력으로 인해 인근 건축물과 차량 피해도 잇따랐다. 루트피 술리스티아완 수라바야 경찰서장(총경)은 “사고 현장 인근 상가 건물 및 배후에 위치한 민가 15채를 포함해 총 41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해 건물 대다수는 충격파로 인한 유리창 파손에 그쳤으나, 발화 지점과 바로 인접한 5개 동 및 인근 민가 5채는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어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또한,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4대(메르세데스-벤츠·토요타·BYD·스즈키 등), 트럭 1대, 오토바이 11대 등 총 16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특히 사고 식당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3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파됐다.

◇ 현장 감식 결과 50kg LPG 용기 3개 발견… “가스 누출에 무게”

사고 직후 동부자바주 지방경찰청 기동여단(Gegana) 폭발물처리반(Jibom)이 투입돼 정밀 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 현장 내부에서 50kg 용량의 대형 LPG 가스통 3개가 발견됐다.

루트피 서장은 “폭발물처리반과의 합동 조사 결과, 테러나 폭약 등에 의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스 용기 자체는 파열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배관이나 연결 밸브 등 공급 체계에서 누출된 가스가 밀폐 공간에 축적된 뒤 점화원과 접촉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동여단 특수부대장 디안 비키 산디 소령 역시 “이번 사고는 밀폐 공간 내에 가스 압력이 차오른 상태에서 폭발한 ‘밀폐 공간 가스 폭발’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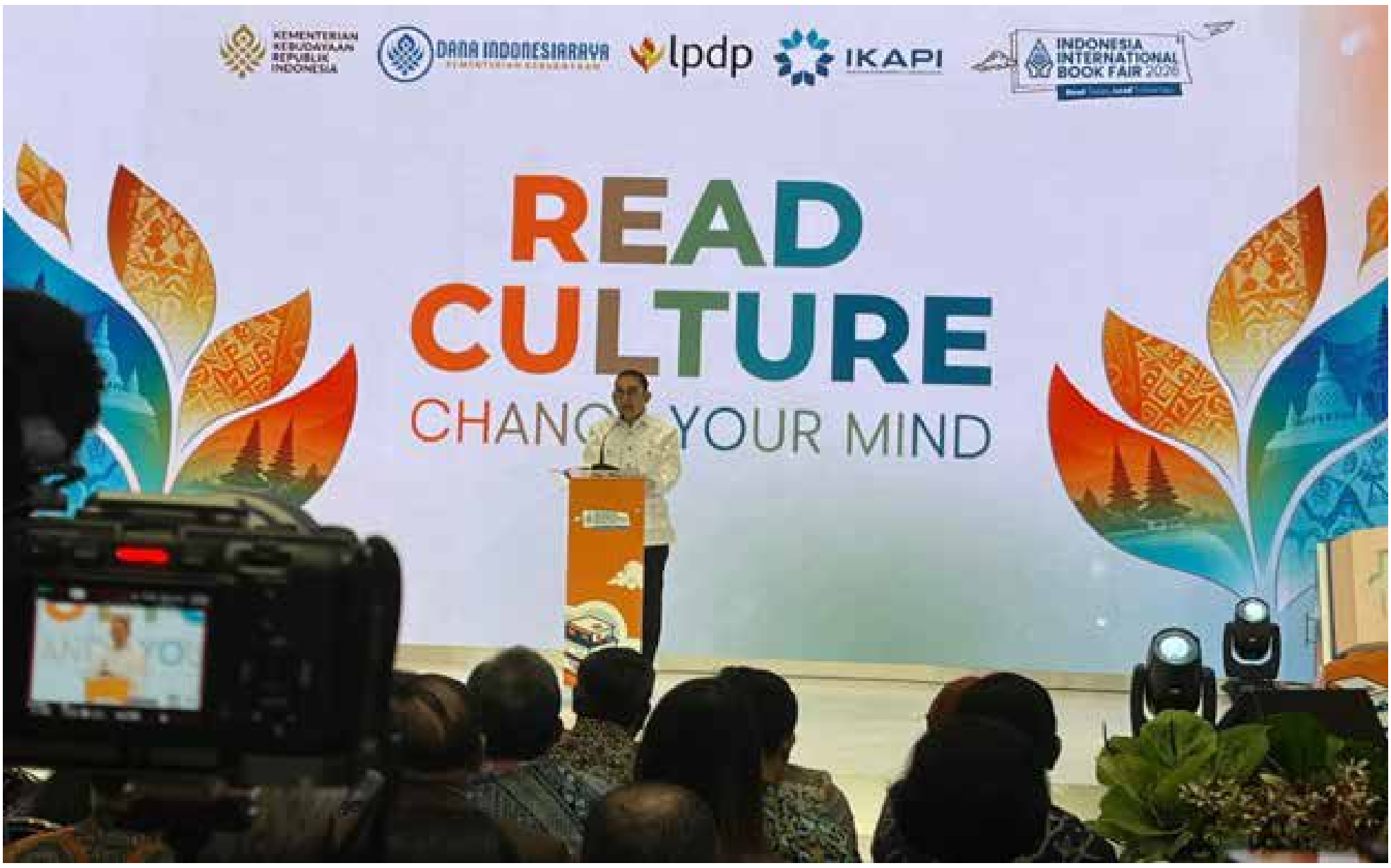
경찰과 관계 당국은 인근 상가 및 주택의 구조 안전 진단을 이어가는 한편, 업소 관계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누출 경로와 화재 점화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파들리 존 인니 문화부 장관, ‘IIBF 2026’ 공식 개막 선언…
“책은 문화 외교의 핵심 사절”

- 9월 30일부터 5일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서 개최
- 단순 도서전 넘어 저작권·IP 등 콘텐츠 창조산업 허브로 도약 모색
- “누산타라 문명 세계화 및 대중의 도서 접근성 확대에 주력할 것”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이 30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도서전(IIBF 2026)’ 개막식에 참석했다. (30/9/2026). (Foto: Hanin Post)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도서전(IIBF 2026)’ 개막식에 참석해 공식 개막을 선언했다. 올해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파들리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IIBF 2026은 문해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콘텐츠 기반 문화 및 창조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행사 개최를 환영했다. 아울러 "IIBF는 단순한 도서전을 넘어 대중의 문해력 증진, 출판산업의 전문적 육성, 나아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과 연계된 창조산업 협업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파들리 장관은 작가와 출판계를 향해 인도네시아 고유의 문화를 담은 저작물 출간과 다국어 번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누산타라(인도네시아 제도) 문명의 수많은 역사적 궤적이 아직 쓰이지도, 읽히지도 못한 채 남아 있다"며 "책은 세대와 국가를 잇는 지치지 않는 외교 사절이자 문화 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향후 ‘다나 인도네시아 라야’ 기금 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 및 출판계와 협력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넓힐 방침이다.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들은 국민의 도서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웨다 스트라테스티 유다 IIBF 조직위원장은 "‘독서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리스 힐만 누그라하 IKAPI 회장 역시 "국민의 독서 흥미는 충분하나 실질적인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Z세대와 알파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포맷과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0년 첫 개최 이래 출판·문화계의 종합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IIBF는 올해 ‘오늘 읽고, 내일 이끌다(Read Today, Lead Tomorrow)’를 주제로 내걸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어린이 대상의 ‘칠드런스 북 페스트’와 전문가 교류를 위한 ‘릿 커넥트(Lit Connect)’, 저작권·번역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이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도서전(IIBF 2026)’을 관람하고 있다. (Foto: HaninPost)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도네시아 라이츠 페어(IRF)’에는 전 세계 18개국 93개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서 약 125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인도네시아 저작물과 콘텐츠의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무상급식소 인센티브, '정액제' 폐지… 10월 5일부터 '1식당 2,000루피아' 종량제로 전환

- 국가영양청(BGN), '일괄 600만 루피아' 지급 방식 공식 폐지
- 실제 배식량 연동해 국가 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성 강화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이 무상 영양식(MBG)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영양공급서비스단위(SPPG)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BGN은 2026년 10월 5일을 기점으로 각 급식소에 일일 600만 루피아(IDR)씩 일괄 지급하던 기존의 정액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수혜자에게 배식된 식단 1식당 2,000루피아를 지급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공식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의 유효 서비스 일수 및 SPPG 서비스 가용성·품질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국가영양청 규정 2026년 제13호' 및 관련 청장 결정을 근거로 시행된다. 프로그램 적용 범위 확대에 맞춰 인센티브 체계를 현실화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다르요노 BGN 청장은 5일 자카르타 농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체계에서는 각 급식소가 제공하는 배식 규모가 상이함에도 모든 곳에 하루 600만 루피아라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하루 2,000식을 공급하는 급식소의 인센티브는 400만 루피아로 조정된다. 기존에 기본 지급되던 600만 루피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일 배식량이 3,000식에 도달해야 한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기존의 600만 루피아는 3,000식에 단가 2,000루피아를 곱해 산출된 기준"이라며 "감사원(BPK)과 재정개발감사청(BPKP)의 감사를 거친 결과, 배식량과 무관한 일괄 지급이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협력 파트너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 유틸리티'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선을 그었다. 1식당 2,000루피아 책정은 단기 폭리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소 Dapur MBG. (Foto: Istimewa)

수다르요노 청장은 "무상급식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는 공공 유틸리티 사업과 같다"며 "단기 마진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물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므로 파트너의 투자금 회수와 적정 이윤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소마다 설비 용량과 초기 투자 규모가 다른 만큼, 배식량에 비례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BGN은 기존 600만 루피아 정액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재차 확인하며, 운영 재단과 관리자, 영양사, 현장 조리 인력 등 모든 관계자가 개편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 거버넌스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국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설명회' 개최 … 현지 교육계 큰 호응

북수마트라 300여 개 학교 · 1,000여 명 참여… 인력 교류 협력 기반 다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대사 윤순구)은 지난 9월 30일 북수마트라주 교육청 및 주수마트라 대한민국 명예영사관과 공동으로 현지 학교 관계자 대상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확보가 시급한 한국의 상황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청년 인재풀을 연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 정부는 전문 외국인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치·육성하고자 2024년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정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 요양시설 등에 정식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한국 내 21개 대학이 해당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양성대학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절차, 졸업 후 취업 및 E-7 체류자격 전환까지 전반적인 유학·취업 경로를 현지에 상세히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홈페이지.2024.12

윤순구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양국 상생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돌봄 인력 수요와 인도네시아의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이번 제도가 양국 인재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설명회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판린둥안 푸르바(Panlindungan Purba) 주수마트라 한국 명예영사, 고톳 수하르워토(Gotot Suharwoto) 인도네시아 초중등교육부 총국장, 알렉산더 시눌링가(Alexander Sinulingga) 북수마트라주 교육청장 등 현지 교육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북수마트라 전역의 300여 개 일반계(SMA) 및 직업계(SMK) 고등학교 관계자 1,000여 명이 접속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돌봄 인력 양성 제도를 현지에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한국 돌봄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교류·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피버(FEVER)', 자카르타의 밤을 흔들다… 한·인니 문화 교류 성황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2026 해외문화원 순회 Touring K-Arts' 일환으로 초청 공연 개최
- 한국 전통의 '흥'과 현대무용의 결합… 현지 관객 및 예술인과 뜨거운 호흡 나눠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지난 10월 2일과 3일 자카르타 롯데몰 내 위치한 'KOREA 360'에서 대표작 '피버(FEVER)'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한국문화원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Ambiguous Dance Company)는 지난 10월 2일과 3일 자카르타 롯데몰 'KOREA 360'에서 대표작 '피버(FEVER)'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한국문화원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한국 전통음악의 독창적인 리듬과 현대무용의 역동적인 신체 언어가 어우러진 대표 현대무용단의 무대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매료시켰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이상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 해외문화원 순회 Touring K-Arts' 사업의 일환으로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Ambiguous Dance Company)를 초청, 지난 10월 2일과 3일 양일간 자카르타 롯데몰 내 위치한 'KOREA 360'에서 대표작 '피버(FEVE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악과 춤사위에 깃든 '흥'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현대무용이라는 동시대적 예술 언어로 재해석해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대 예술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K-컬처의 독창성과 생동하는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무를 총괄한 김보람 예술감독은 "한국의 흥은 곧 에너지"라며 "전통 소리를 들을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고유의 에너지를 이번 공연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고 연출 의도를 전했다. 실제로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한국 전통 리듬에 맞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속도감과 파격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며 객석의 시선을 압도했다. 공연이 전개됨에 따라 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와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본 공연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전통 및 현대무용 전문 단체인 '에키 댄스 컴퍼니(Eki Dance Company)'의 프리쇼가 무대에 올라 양국 예술가들의 춤이 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호 교류의 장이 연출됐다. 아울러 공연장 일대에서는 딱지치기, 연 만들기 등 한국 전통놀이 체험과 K-뷰티 부스가 함께 운영돼 현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무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정수를 현지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양국 문화 예술계의 교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인도네시아 관객 및 현지 예술인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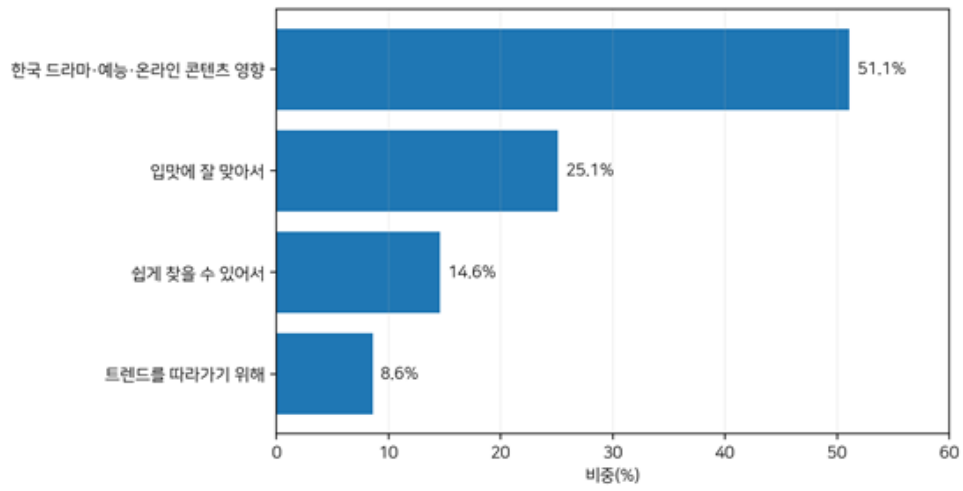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한식, 체험을 지나 다음 장으로

인도네시아 한식 시장, 첫 경험을 넘어 재구매 경쟁으로

한류가 만든 체험, 반복 소비로 이어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식은 더 이상 낯선 외국 음식이 아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예능을 통해 떡볶이, 한국식 치킨, Korean BBQ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한식 경험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높은 관심이 곧 반복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목할 변화는 체험 소비가 반복 소비로 이동하면서 메뉴·매장·유통·운영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주요 이유(20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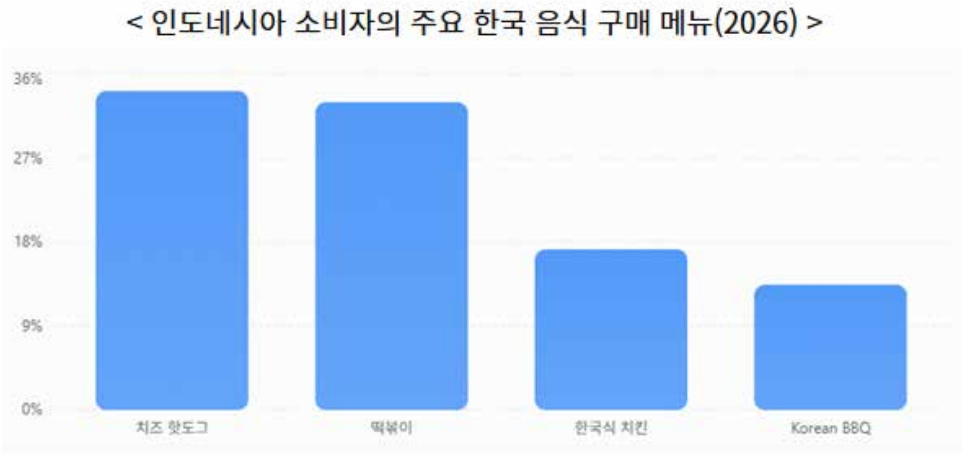


[자료: Jakpat, 「Korean Street Food Is Trending, But Are Our Hearts Still With Local Snacks?」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인도네시아 시장조사업체 Jakpat이 2026년 8월 1,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식이 일부 한류 팬을 넘어 대중적인 외식 경험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한국 음식을 경험한 가장 큰 계기는 한국 드라마·예능·온라인 콘텐츠 영향(51.1%)이었다. 반면 경험자의 74.9%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로컬 간식을 더 선호했고,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 지속적으로 먹고 싶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한류가 체험을 만드는 힘은 크지만, 이를 반복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다음 과제인 셈이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주요 한국 음식 구매 메뉴(2026) >



[자료: Jakpat, 「Korean Street Food Is Trending, But Are Our Hearts Still With Local Snacks?」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캐주얼 메뉴와 다채널 소비가 한식의 일상화를 이끌다

Jakpat 조사에서는 치즈 핫도그와 떡볶이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단품형 메뉴는 가격 부담이 비교적 낮고 조리 표준화가 용이해 소형점포·푸드코트·배달 전문점으로 확장하기에도 적합하다.

최근 진출한 bhc Chicken도 한국의 대표 소스와 브랜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현지 소비방식을 고려한 메뉴를 적용했다. 현지화가 한국적인 맛을 없애기보다 반복 구매가 쉽도록 메뉴와 이용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식 소비의 변화는 구매 장소에서도 뚜렷하다. Jakpat 조사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구매 장소는 노점·길거리 판매점 58.5%, 한국음식 전문 카페 42.4%, 온라인 배달 앱 32.1% 순이었다.

이는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정식 레스토랑에서 소형 K-Food 매장·푸드코트·배달 전문점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와의 거리를 줄이고, 시장 세분화에 대응하다

한식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한식시장은 소비 목적과 가격대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현지 한식 브랜드 Mujigae는 Bandung, Bekasi, Tangerang의 dine-in 매장과 함께 Jakarta, Bogor, Bandung, Depok, Bekasi 등으로 배달거점을 확대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61개 온라인 배달거점을 소개하고 있다. GoFood, GrabFood, ShopeeFood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줄이는 방식이다.

< 인도네시아 주요 한식당 브랜드 및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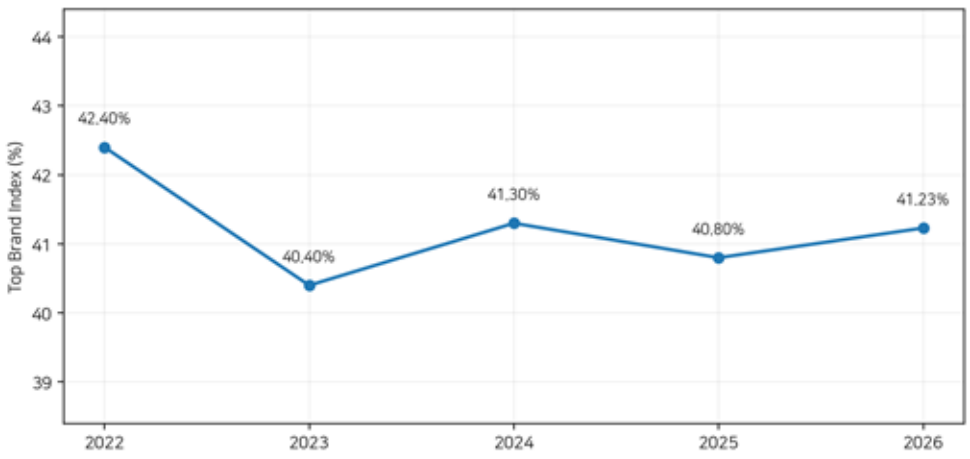
브랜드	유형	주요 메뉴	주요 타깃·특징	사업모델
Mujigae	인도네시아 브랜드	비빔밥·떡볶이·Korean BBQ	대중·캐주얼·할랄	배달거점 중심 다채널
Kyochon	한국 프랜차이즈	한국식 치킨	쇼핑몰 이용 소비층	주요 쇼핑몰 중심
Paris Baguette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빵·케이크·카페 메뉴	도시 중산층 라이프스타일 소비	현지 대기업 JV·다지역 출점
Cheongdam Garden	한국계	구이·갈비·한식	중상위·비즈니스·모임 수요	프리미엄 dine-in
Halla Korean Taste	한국계	Korean BBQ·한식	무슬림 대상 프리미엄 dine-in	할랄 인증
Minsokchon	한국계	Korean BBQ	쇼핑몰 이용 소비층	노포크·노라드 콘셉트

[자료: 각사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기업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반면 자카르타 Senopati의 한식당 청담가든(Cheongdam Garden)은 다른 시장을 겨냥한다. 갈비와 구이류를 비롯한 다양한 한식과 개별 공간을 갖추고 중상위 소비층과 비즈니스·모임 수요를 주요 고객으로 한다. 현지 예약 플랫폼 Chope가 소개하는 가격대도 1인 Rp250,000~400,000(약 2만 1,500원~3만 4,400원)수준이다. 이는 한식의 현지화가 반드시 저가격·캐주얼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 공간 경험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세분화 흐름은 할랄 대응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자카르타 Kebayoranbaru (Petogogan)의 할라 코리안 테이스트(Halla Korean Taste)는 100% 할랄 인증을 받은 한식당으로, 코리안 BBQ와 할랄 소주까지 갖춰 무슬림 소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반면 최근 자카르타 센트럴파크몰에 문을 연 민속촌(Minsokchon | Korean Resto & BBQ)은 'No Pork·No Lard(돼지고기·라드 미사용)'를 내세워, 정식무슬림 소비자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안적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

< Mujigae Top Brand Index 추이 >



[자료: Top Brand Award, Restoran Korea 부문]

이처럼 한식시장의 확대는 대중형·배달 중심 모델에서 쇼핑몰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독립식당까지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지 기업이 한국음식을 재해석해 자체 브랜드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TARA Group Indonesia의 Chadol Gujeolpan이 그중 하나다.

이러한 변화는 Mujigae의 브랜드 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Top Brand Award 조사에서 Mujigae의 Top Brand Index는 2022년 42.4%에서 2026년 41.23%까지 5년간 40% 안팎을 유지했다.

Mujigae가 장기간 비슷한 브랜드 지수를 유지한 것은 현지에서 개발된 K-Food 브랜드도 일정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식시장이 세분화될수록 브랜드 국적보다 목표 소비층에 적합한 가격·메뉴·판매채널과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할랄에서 공급망까지, 현지 운영역량이 중요해지다

한식시장이 확대되면서 할랄 대응은 프랜차이즈의 주요 운영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다점포 레스토랑에 대해 인증 취득뿐 아니라 각 매장에서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외식기업에 단순한 인증 이상의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산 소스와 조미료는 할랄 인증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고, 현지 원재료로 대체할 경우에는 맛과 품질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할라 코리안 테이스트와 민속촌의 사례처럼, 완전한 할랄 인증을 갖추거나 무돈육·무라드를 표방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하든 결국 할랄 대응은 인증을 넘어 원재료 조달과 조리, 공급망, 점포 운영을 관리하는 현지 운영역량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현지화 수준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인터뷰한 현지 F&B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가는 최근 한국 F&B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주요 F&B 기업들이 과거처럼 한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나 성공 사례만을 근거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추진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랄 인증과 식재료 조달, 가격 경쟁력, 현지 소비자 취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해외 브랜드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현지 기업이 직접 K-Food 브랜드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식시장은 한식을 처음 소개하는 단계를 지나 이미 다양한 한식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지 기업도 한국식 메뉴와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만큼,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 자체보다 소비자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메뉴와 가격, 이를 뒷받침하는 현지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한식시장은 이미 한식을 경험한 소비자의 재구매를 확보하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가격대와 소비 목적, 할랄 대응 방식에 따른 시장 세분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Mujigae의 대중·배달형 모델, 청담가든의 프리미엄 모델, 할라 코리안 테이스트·민속촌처럼 할랄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신규 진입 사례에서 보듯 모든 브랜드에 동일한 현지화 전략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외식기업은 한류나 한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시장성의 근거로 삼기보다 목표 소비층과 가격대, 메뉴, 판매채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 10월 할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완전한 할랄 인증을 취득할지, 무돈육·무라드 표방 같은 단계적 접근을 택할지를 목표 소비층에 맞춰 조기에 결정하고 이에 맞는 공급망·조리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할랄과 원재료 조달 등 현지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역량이 결국 재구매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Jakpat,「Korean Street Food Is Trending, But Are Our Hearts Still With Local Snacks?」(2026.8.31), Top Brand Award 2022~2026,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Mujigae·Kyochon Indonesia·bhc Chicken·Chadol Gujeolpan 각사 공식자료, Cheongdam Garden(Chope), Halla Korean Taste·Minsokchon 공식 인스타그램,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및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CGV | 2026년 10월 6일 ~ 12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9월 30일



*액션
*이제는 적이 된 두 친구가 다시 고액의 포커 테이블에서 만나, 그곳에서 복수의 게임과 정면으로 맞선다.

10월 2일



*애니메이션
*한 쌍의 친구가 서로의 기억을 잃게 만드는 신비한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10월 12일



*음악
*블랙핑크의 활동이 잠시 중단된 후, LISA가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LISA가 데뷔 솔로 앨범 'Alter Ego'를 작사하고 녹음하며 발매하는 여정을 담았다.





커밍 쑨 in CGV

10월 14일



*액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스트리트 파이터가 다시 링에 뛰어들어 격투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음모에 맞서야 한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